# 순천 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전남 최초…내일부터 진료·치료 응급 상황 대비 365일 24시간 대기 순환기내과 등 7개과 전문의 43명

순천 성가롤로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 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남 최초로 1일 문 을 열고 지역민 건강증진에 본격 나선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치료하고, 체계적 심뇌혈관 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의 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고이다.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는 순천시와 성가롤로병원의 지속적인 의료인프라 조성 노력 에 힘입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순환기내과(전문의 6명)·심장혈관흉부외과 (3명)·신경과(5명)·신경외과(4명)·영상의학과 (7명)·재활의학과(2명)·응급의학과(16명)의 7개 진료과에 43명의 전문의가 배치돼 있다. 1년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1일 5명의 전문의가 순환 당직을 서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특히 심뇌혈관조영실에는 5명 1팀으로 구성돼 운영되며, 순환기내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 하며 당직 대기하면서 24시간 심뇌혈관 중재시술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센터에는 혈관조영기(3대)·에크모(2대) 등 총 36종의 의료장비가 구비돼 있다. 이중 에크모는 제외막산소요법에 쓰이는 의료장비로써,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저하돼 기존의 방법으로는 생명

유지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심장 및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장치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 뿐만 아니라 조기재활대상 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병원 간 유기적인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입·퇴원 환자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함께 예방관리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그간 중증응급환자 전원율 1위의 순천에서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으며, 아울러 전남 동부권 환자들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장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이번 심뇌 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따라 전남 동부권에서 24시 간 응급 시술 및 수술이 가능해지고, 예방관리 교 육까지 이뤄지면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남대병원 등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네트워크를형성해 지역사회 홍보 및 지원 활동에 적극참여할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와 성가롤로병원은 지난 18일 호남 호국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지역심뇌혈관질환 센터 개소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대병원 중앙심뇌혈관질환 센터,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순천시의사회 등 의료전문가와 학계 관계 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

>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그림자' 시사회 유튜브 '힐링여수야' 공개

여수 관광 열번째 웹드라마



여수시가 지난 26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번째 관광 웹드라마 '그림자' 시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작품은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해나가는 MZ세대의 휴먼 판타지 드라마로, '어둠 속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는 빛의 산물'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았다.

고장 난 괘종시계를 매개로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여수 근현대사의 비극인 '남면 이야포 사건'을 다룬 점도 눈에 띈다. 웹드라마 '그림자'는 여수시 공식 유튜브 채널 '힐링여수야'를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딜라이브 OTT'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 작품 외에도 지난 2015년 '신지끼의 사랑이야기'를 시작으로 2024년 '하멜'까지 총 9편 의 관광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이들 작품은 이탈리아 오니로스 필름 어워즈 등 국내외 웹페스트 시상식에서 다수 수상하며 작품성 과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이는 지난해 여수시가 전 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 웹페스트를 개최하는 기반 이 됐다. 이로써 시는 오는 9월3일 '제2회 국제 웹 드라마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평생 in 광양, 인생 2막 설계 프로그램' 운영

46세 이상…다음달까지 신청

광양시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2025 평생 in 광양, 인생 2막 설계 프로그램'을 유영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46세 이상 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은퇴 이후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인생 2막 노후 설계 ▲커뮤니케이션 스킬 ▲은퇴자 금융 관리(재정설계·자산관리·경제법률) ▲셀프 건강관리(저속노화·대사질환 예방) ▲재취업 실전 코칭(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전략 등) ▲노후준비 종합진단(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이다.

교육 기간은 8월19일부터 9월11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중마도 서관 3층 인문학실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과 함께 개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된다.

모집인원은 30명(선착순)이며, 신청 기간은 7월3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청 3층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imchoa@korea.kr)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봉산 숲속야영장' 전경.

## 광양만 바라보며 힐링캠프 즐기세요

구봉산 숲속야영장 본격 운영 빼어난 야경에 다양한 편의시설

지난 7일 개장한 광양 '구봉산 숲속야영장' (이하 '숲속야영장')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30 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칭) 내 둥지를 튼 숲속야영장은 야영데크 28면, 트리하우스 5동 규모로 웰컴센터, 취사대, 샤워장, 무료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탁 트인 광양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에 아름다운 야경은 숲속야영장만의 특징이다.

캠핑은 하고 싶지만, 야외 숙박이 부담스럽거나, 아직 캠핑에 입문하지 못한 예비 캠퍼들을 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캠핑 분위기를 낼 수있는 '캠크닉' 전용 사이트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텐트, 테이블, 의자 등이 준비돼 있어, 번거롭지 않고 쉽고 편하게 소풍 같은 캠핑을 즐

길수있다

웰컴센터에서는 커피, 음료, 라면, 햇반 등 캠 핑에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며, 외부 음 식 반입은 물론 인근 상가의 배달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광양시는 숲속야영장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실시간 예약 플랫폼 '캠핏' (www.camfit.co.kr)을 통해 예약 접수를 진행 중이다. 야영장의 1박이용 요금은 2만5000~5만원이며, 캠크닉 이용요금은 5시간 기준 1만5000원~3만원이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구봉산 숲속야영 장은 반짝이는 야경부터 장엄한 일출까지 경이 로운 자연과 마주하며 힐링할 수 있는 캠핑은 물 론, 가볍게 캠핑의 로망을 만끽할 수 있는 당일 치기 캠크닉도 가능한 도심형 감성 야영장"이라 며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 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I언다 고 될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흥 녹동조합장에 박기탁 전 고흥농협 전무 당선

고흥녹동농협조합장에 박기탁〈사진〉전 고흥농 협 전무가 당선됐다

박기탁 조합장은 지난 26일 4명의 후보가 나선 농협조합장재선거에서총 유효 투표수 2493표 중 1006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신임 조합장은 "녹동농협 조합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칭찬받는 농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조합원 중심 경영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조합장은 녹동농협 도덕지점장. 경제상무. 공판장장 등 30여년 간 농협인으로 근무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보성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고독사 예방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보성군 보성읍이 지난 25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이번 교육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이해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능동적인 복지 발굴 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성 보성읍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위기가구 없는 따뜻한 보성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성읍은 희망드림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이통장,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으로 활발히 활동하 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